



건강체크

재발과 전이 위험 큰 신장암

신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다른 검사 시 발견되는 비율이 높다.

“아버님이 소변보는데 혈뇨가 나와서 검진을 받으니 신장암이라더라고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님이 소변보는데 혈뇨가 나와서 검사를 받으니 신장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침묵의 질병, 신장암 신장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신세포암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암이 그렇듯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약 50~60%를 차지한다.

그러나 신장암에도 대표적인 증상이 3가지가 있는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지속적인 옆구리의 통증,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암은 아니며,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상기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의 경우처럼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일반인으로서 많이 놀랄 수 밖에 없다.

혈뇨는 육안으로 보이는 육안적

혈뇨와 그렇지 않은 미세혈뇨로 나뉜다. 미세혈뇨는 가벼운 병이고 육안적혈뇨는 중한 병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혈뇨가 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미세혈뇨와 육안적혈뇨의 상태로 나타날 뿐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성인질환은 없는지, 과거에 다른 병으로 방사선치료나 수술을 받지는 않았는지, 내원하기 전에 외상 등의 병력은 없는지, 혈뇨를 유발할 수 있는 아스피린, 와파린 등의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는지, 전립선비대증이나 방광암, 혹은 비뇨기계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배뇨증상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진한다.

문진 과정을 통해 혈압, 빈혈 상태의 확인을 위한 창백함 확인, 옆구리 통증이나 하복부 통증 유무, 배

뇨장애 증상 유무, 이번이 처음인지 과거에 반복적으로 이런 혈뇨가 있었는지 등 증상을 확인하게 된다.

일반 성인의 경우 육안적혈뇨든 미세혈뇨든 진단과정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

진단과정으로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비뇨기계 암을 확인하기 위한 요세포검사 등을 시행하며, 영상학적 검사로는 비뇨기계 정맥조영술, 컴퓨터단층촬영, 초음파 등을 시행한다. 그리고 방광염 같은 염증이 의심되거나 방광염을 동반한다면 항생제를 먼저 처방하여 감염으로 인한 혈뇨의 가능성에 대해 치료를 시작한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방법 소변에서 피가 보인다고 곧바로 암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변에서 피가 보이면 반드시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내원하여 왜 혈뇨가 나오는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

아야 한다. 일단 신장암으로 진단받으면 암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전신상태, 연령, 동반된 다른 질환의 유무, 환자 자신의 의사 등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가장 흔한 신세포암의 경우에는 대체로 방사선치료나 항암화학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완치를 고려한다면 수술이 필수적이다.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고 신장 내에 국한된 신세포암의 경우에는 개복이나 복강경, 로봇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장 전체를 전부 다 적출하는 근치적신적출술, 혹은 부분만 적출하는 부분신적출술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진단 당시부터 전이가 있든지, 적극적인 치료 후 재발이 된 경우에는 전이병소절제술이나 종양감축 신적출술 등의 수술적 치료와 함께 항암치료인 표적치료를 보통 시행하게 된다.

일부 환자에게는 면역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너무나 전이가 많아 수술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대증적 치료나 표적치료만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나온 면역치료도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신장암으로 진단되었다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암 진단을 받으면 충격과 당혹감, 혼란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 많은 의문과 고민, 불안으로 힘들어한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계속 새로운 치료방법이 나오고 있고 결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지형 인제대학교교과대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지 발행)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대형공사장 화재 안전관리는 작은 관심서 시작



김석운 /보성소방서장

지난 2020년 4월 29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선다.

공사현장은 늘 여러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장 관계인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소방기본법 등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특히,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티는 매우 작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

는 화재는 관계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크다. 전기, 가스에 사용하는 작업 자재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용하고 작업장 내에서 모닥불 또는 흡연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업 시 반드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을 시작하고 위험작업 현장은 안전감독자에 의한 확인 및 화재안전 예방순찰을 실시하며 동일 작업장 내에서 용접·용단 작업과 페인트 도장작업, 우레탄 발포작업 등 동시 작업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또한, 비상구의 문은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하여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계자 교육을 통한 확고한 안전의식 함양으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함께 관계인의 안전한 현

장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임시소방시설 설치로 공사장 화재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에 신경써야 한다.

폭염 속 온열질환 이렇게 대비하자



추종민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장

여름철 평균기온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또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된다고 한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상황 시 대

앞으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

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폭염뿐만 아니라 고온 고습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일컫는다.

온열질환의 종류로는 40도 이상 고열·중추신경 이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 땀이 많이 나고 두통·어지럼증·구토·탈수 증상이 발생하는 열탈진, 팔·다리·복부·손가락 등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는 열경련, 어지럽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 손·발·가슴 등이 붓는 열부종 등이 있다.

이러한 온열질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먼저 의식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의식이 있다면 그늘이나 실내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켜 겉옷을 벗기고 물수건이나 부채 등으로 체온을 내려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시켜주고 안정을

취해준 후에도 호전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만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옷을 느슨하게 해준 후 물수건이나 부채 등으로 119가 도착할 때까지 체온을 내려주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 수분섭취는 기도 폐쇄,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고령자·어린이·임산부·와이

근로자 등의 폭염 취약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옷은 통풍이 잘 되도록 시원하게 입는 것이 좋으며, 어두운 색 계열보다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눈이나 발·야외작업장 등 위험지역에서 업무 시에는 되도록 2인 1조로 행동하며 갈증이 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이나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건강한 일상 속 여름나기! 예방법과 대응요령에 대한 당신의 관심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재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62)363-880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 TEL: (062) 363-8800, FAX: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http://www.homae.co.kr, E-mail: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Table with 3 columns: 지국안내, 상무, 오치, 지사안내, 목포, 순천, 광양,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영광, 완도, 장흥, 신안, 강진, 장성, 무안, 여수, 함평, 영암, 진도, 해남, 고흥, 광산